

만남

2018년 12월
통권 167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희망의 도구-----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4
소공동체 소개	-----	7
교리	교리산책-----	8
기도 소개	삶을 위한 기도-----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미소 짓는 그리스도인	-----	15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2월 기도지향》

❖ 선교: 신앙 전수를 위한 활동

신앙 전수를 위한 활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문화와 대화하는 가운데 현 시대의 상황에 적합한 언어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희망의 도구

연말연시(年末年始)의 시간이 다가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 해를 되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고통이 많았던 해였는지, 아니면 행복이 많았던 해였는지 새삼 반추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시간에 고통과 갈등,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 희망을 배우는 지혜의 눈을 크게 뜨게 해달라는, 간절한 비움의 기도를 바친다면 어떨까요?

1950년대에 유럽세상을 바꾼 희망철학과 희망신학이 새삼 절실해집니다. 1·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허허벌판에, 겨우 세워진 작은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광경을 목격한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큰 용기를 얻어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희망에 관한 이야기는 고통과 좌절에 처한 유럽인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희망철학과 희망신학은 단순한 하나의 책장 속에 갇힌 이야기꾼들의 말장난이 아니라, 전쟁으로 남은 것이라곤 폐허뿐인 고통스런 삶의 현장에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킨 정신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지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에서 고통과 갈등을 일순간에 싹 걷어낼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런 세상은 없기 때문에 인간이 꿈꾸는 이상향(理想郷)을 ‘유토피아’라고 한다지요. 유토피아라는 말이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라는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통과 갈등, 실패와 좌절은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평생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통과 갈등, 실패와 좌절의 세상이라 해도 우리에게겐 희망이 있고, 도전과 극복이 있음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한 저 철학자나 신학자들처럼 우리도 각자가 경험한 희망과 용기, 도전과 극복을 이야기한다면, 좌절과 고통, 갈등으로 어둡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를 희망의 세상으로 바꾸는 작은 운동이 되지 않을까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주님,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연말에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은총과 희망의 도구가 되는 삶을 신명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말을 보내는 자세이기를 모두에게 희망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루카 3,1-6)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3장 “온 세상에 전파하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전하오리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 1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래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 2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 3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 4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 5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3 6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 *내 마음이 곧아지고 평탄하게 된 기억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말씀을 듣고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의무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마음이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첫째는 내가 복음의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내 외침을 내 목소리를 과연 잘 들어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내가 외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바로 자기반성 즉 회개입니다. 내 삶이 올바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외쳐봤다 힘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소리일 따름입니다.

둘째는 평소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얼마나 기울였는가?’, 또 ‘잘 들어주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움직이려 할 때 무심결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주면 그 사람도 나의 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내가 억지로 말을 듣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묵상해봅시다. 나의 말은 세례자 요한의 외침처럼 나 자신에게 먼저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인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 내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외쳐대지 않아도 사람들과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3장 “온 세상에 전파하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포근한 본당(지세포본당 서미순 보나)

지세포본당은 올해로 본당설립 26주년을 맞이한 반어촌, 반농촌 본당으로 관광객 신자를 포함 해 약 200명 정도가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당 건너편에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성당의 바람막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우리 본당 신자도 불어날 것이라고 겨자씨만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희 본당은 현재 8개의 소공동체가 있습니다. 구역장이 반장을 겸하고 있고, 이분들을 주축으로 한 달에 한 번 가정에 모여 기도 드리고 담소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토닥입니다. 또 보살펴 드려야 하는 분이 계시면 도와드리고, 적은 액수지만 회비를 모아 편찮으시거나 돌아가셨을 때, 미사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본당 실정상 젊은 분들이 적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편이라 일 할 사람이 없어 매년 걱정부터 앞서지만, 소공동체 반장님들이 ‘성당일은 시작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도 소공동체가 우리 선조들의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소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제든지 미사를 청하면 구역미사를 해주십니다.

거제를 찾으시는 관광객 가운데 많은 신자분들이 본당을 찾으십니다. 오시는 분마다 성전이 참으로 아담하고 아름답다며 말씀해 주시지만 26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 건물도 노후화 되어 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아, 지난 10월에는 이틀에 걸쳐 본당의 날 행사로 성전 보수 기금 마련 바자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반원들과 반장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정성으로 기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지만 마산 교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는 자부심으로 성전을 가꾸고 열심한 마음으로 신부님의 사목에 협력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는 높은 곳에서는 여느님께 영광!



34. 공동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의 선(善)을 바라며, 그 선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선 이외에, 사회생활과 관련된 선, 곧 공동선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가정, 중간 집단이 함께 모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선입니다.”(베네딕토 16세 교황, 「진리 안의 사랑」 7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공동선을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완성을 보다 완전하고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체”(「사목헌장」 26항)라고 정의합니다. 공동선은 인간 기본권의 존중과 신장, 사람과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선익의 발전, 모든 이의 평화와 안전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평화를 위한 노력, 국가 권력 기구, 건전한 사법 체계, 환경 보호, 모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 제공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음식, 주거, 노동, 교육, 문화와 교통, 기본적인 의료 혜택,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같은 인간 권리의 수호도 필요합니다.

공동선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동선을 이루고 증진하는 데에 협력할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동선을 달성해야 할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게도 있습니다. 공동선은 정치권력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정당화되고 그 의의를 발견하며, 공동선에서 비로소 고유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사목헌장」 74항) 실제로, 국가는 전 국민이 공동선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의 공동선의 표현인 시민 사회의 결속, 일치, 질서를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단체는 혼자서는 참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온전한 발전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질적 문화적 도덕적 정신적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치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선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서로 다른 이익들을 정의의 요구와 조화시켜야 하는 각별한 의무를 지닙니다. 집단의 특수한 이익과 개인의 특수한 이익을 올바르게 조정하는 일이 사실상 공권력이 맡은 과제 가운데 가장 힘든 일입니다. 모든 국가와 위정자들이 공동선에 대한 자신들의 책무를 마음에 새겨 전 인류 가족의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시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물론 공동선을 위한 우리 각자의 책임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35. 성모송

성모송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루카복음 1장의 말씀에 기대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서 함께 계시니”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28절)에서,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종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벳이 건넨 인사(42절)에서 각각 비롯됐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엘리사벳의 인사로 성모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되셨고 왜 행복하게 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께서서 함께 계시면 누구라도 행복해지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리아가 하느님 은총에 열려 있었다는 것과 그 은총을 갈망하고 하느님께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천사의 방문으로 당황했던 마리아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가 삼종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38절)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놀라운 응답으로 소녀 마리아는 성모님이 되셨고 구세주 예수님께서서 우리 인간 사이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모님이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바가 큼니다. 성모님은 헤아릴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모님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일생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됩니다. 성모님의 삶은 고달픈 인생 항로를 헤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끝없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삶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는 교회 공동체가 첨부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교회는 구세주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된 삶을 사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죽음을 대비하여 성모님께 의탁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모송은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순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사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죽음을 맞는 영혼을 흔든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대비해 이런 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모님께 의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36. 고해성사

고해성사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누구나 부담을 느끼며 임하게 되는 성사지만, 잘 준비해서 고해성사를 받으면 하느님과 형제자매들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죄 중에 살아가기 마련인데, 이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세례를 통해 그때까지의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 세례 후에 지은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습니다. 죄는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저지른 잘못된 만큼 자기 스스로 양심을 살피며 무슨 죄를 얼마나 저질렀는가를 꼼꼼이 살피고 반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찰(省察)이라고 합니다. 성찰을 통해 잘못된 일들이 마음에 떠오르면 그 죄에 대해 뉘우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회(痛悔)입니다. 진심으로 통회를 했으면 고해사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마음을 열고 타인과 화해하듯, 고해성사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느님과 교회 앞에 마음을 열어 화해와 용서를 비는 것이며 나아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입니다. 통회자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고해사제는 정해진 사죄경을 염(念)하고 속죄의 선행을 정해 줍니다. 이것을 보속(補贖)이라고 하는데, 고백자는 고해소를 나와 지정받은 보속을 바쳐야 합니다. 고해사제는 고해소에서 들은 고백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비밀을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교회법에 따라 모든 신자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고해성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한 번의 고해성사는 부활 시기에 이행되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시기에 고해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시기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90조 참조)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자주 봄으로써 양심을 기르고 나쁜 성향과 싸우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성령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고해성사는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회복하고 마음의 평화와 양심의 평안함을 얻으며 하느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는 기쁨의 성사입니다.

삶을 위한 기도문(작가 미상)

오늘 하루 절망이기보다는
모자람을 아는 희망이게 하소서.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공허함일지라도
스스럼없이 지나쳐야 할 참된 나날이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나약함이기보다는
날로 강인해지는 부드러움이게 하소서.

지쳐 쓰러지고 그을리는 그런 피약별 속에서도
목마름의 고통보다는
단비의 촉촉함에 감사하는 여문 성숙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슬픔이기보다는
가슴 속 깊이 넘칠 기쁨이게 하소서.

부서지고 무너지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남아있는 날의 행복을 기원하는
슬픔 안에 다시 넘칠 축원이게 하소서.

오늘 아침처럼 살아가고픈 오늘,
오늘 하루 후회이기보다는
부족함을 아는 만족이게 하소서.

내가 지나온 모든 모자람의 날들이 어우러져
날로 공허함의 일부를 채워가는 작은 소망이게 하소서



질문

같은 성당에 아주 싫은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하는 행동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매우 괴롭습니다. 그 자매는 남편을 여의고 자식을 키운 장한 어머니인데,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자랑이 매우 심합니다. 돈 자랑에 자식 자랑, 심지어 “가진 것이라고는 돈 밖에 없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해대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돈 쓸 일이 생기면 잔돈을 쓰는데도 아주 짠순이처럼 굴어 더 미운데 주위 사람들은 그 자매가 뭐가 좋은지 칭찬만 합니다. 정말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문제인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성당을 비롯한 종교 공동체 안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다시 물음을 던집니다. “자매님이 싫어하는 그 자매를 자매님 혼자서만 싫어하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싫어하나요?”

이 물음에 대해 “저 혼자만 싫어해요.” 하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자매님 본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싫어한다면 상대방 문제이지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아니라 나 혼자만 상대방을 싫어해서 심리적 갈등이 생긴 경우인 것 같네요.

왜 그런가 설명해 드리지요. 사람은 ‘방어기제’라는 것을 갖고 삽니다. 자기 속을 다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서 방어막처럼 사용하는 심리 기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어기제는 ‘투사’입니다. 투사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마치 그것이 상대방의 것인 양 책임소재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내 탓이요.’가 아니라 ‘네 탓이요.’를 하는 것입니다.

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남의 생각처럼 여기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쉽게 투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책임보다 남의 책임으로 돌렸을 때 심리적으로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무의식적으로 도덕적 우월감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투사가 주는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험담과 같은 투사행위는 자신의 억압

된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격성도 없애주기에 중독성이 있어 고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투사와 같은 미성숙한 행위를 할까요? 자기 문제를 보기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 안의 어둠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 즉, 비현실적이고 회피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투사라는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잘 사용합니다.

간혹 지나치게 영적 또는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기 안을 말끔하게 정리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이런 분들이 투사가 심해 자기 안의 어둠이 마치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양 착각하고 수선을 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 안의 악한 성향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혹은 어떤 악한 존재가 따로 존재하는 양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 사회면에 난 범죄 기사를 보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것, 또한 심하게 일어나는 자기 안의 화를 분노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다는 등 하면서 외부대상이 문제인 듯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보다 외부 적과 싸우는 것이 더 편하기에 외부로 투사를 심하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유아적이고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퇴행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왜냐면 투사는 다른 사람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소통을 어렵게 해서 공동체 내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병적 투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사 때마다 기도하는 ‘내 탓이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 탓이요.’란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불편한 감정이 발생했을 때 그 감정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면 침묵의 영성을 수련해야 합니다.

침묵은 영성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안의 문제만을 보려고 노력하면 외적으로는 조용하나 내적으로는 전쟁터의 장수와 같은 심리적 상태가 됩니다. 스님들이 말하는 묵언수행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 상태를 갖는 분들은 자기 안의 문제를 보느라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 잘못을 보거나 다른 사람 결점에 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침묵 안에서 자기 문제를 보고 다듬느라 바쁘면 자연스레 다른 사람 결점은 안 보이고 마음의 편안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한 리필 생명의 빵(살레시안 칼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세상 사람들 앞에 반드시 보여줘야 할 한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 절대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의 연속인 고달픈 이 한 세상이 지나가면, 하느님 은총의 선물인 또 다른 멋진 세상, 꿈에 그리던 행복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견뎌내고 있는 이 참담한 고통, 지금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이 깊은 슬픔, 잘 극복해나가면 정말이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란한 또 다른 세상, 하느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상적인 것, 육적인 것, 눈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다 영원한 것, 보다 가치 있는 것, 불멸하는 것,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해 보여줘야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가까운 곳에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우리가 봉헌하는 성체성사입니다. 은혜롭게도 우리가 매일 거행하는 빵과 포도주의 기적 안에서 우리 눈으로 뚜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성체 때 우리가 영하는 빵과 포도주,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일생일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의 성체는 우리 안에 매일 현존하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의 간절한 바람의 표현입니다.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겨운 바람의 표현이 영성체입니다.

은혜롭게도 우리는 매일의 미사를 통해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실 있습니다. 매일의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크신 하느님을 보잘 것 없고 비천한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맙게도 우리는 매일의 영성체를 통해 죄 투성이인 우리 몸을 하느님의 성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약한 우리 인간이지만 은혜롭게도 성체성사를 통해 영원성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보잘 것 없고 비참한 우리 인간이지만 매일의 미

사를 통해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삶의 참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은혜롭고, 이토록 과분한 하느님의 선물이 매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사막을 횡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를 통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생명의 빵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공되는 생명의 빵은 무한 리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기 위해 발길을 돌리기만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언제든지 마음껏 포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빵입니다.



❖ 미소 짓는 그리스도인 ❖

해외여행을 갔던 양체 아주머니가 고급 양주를 몰래 가져오다가 세관원에
 게 딱 걸렸습니다.
 세관원이 뭐냐고 묻자, 아주머니는 문득 떠오르는 대로 대답을 합니다. “마
 리아 성당의 성수입니다.”
 세관원이 병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조금 마셔본 뒤 얼굴을 찡그리며 말
 했습니다. “아쭌마, 이걸 성수가 아니라 술이잖아요? 지금 거짓말 하신 겁
 니까?”
 그러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
 머나, 성모님의 은총으로 기적이 일어났군요.”



❖ 1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나탈리아	김 성 미	25일	마 누 엘	김 무 진
2일	비비안나	남 궁 현		엠마누엘라 (St. Emanuela) 노 엘	허 선 애 이 동 훈
3일	비 앙 카	허 미 란	26일	스테파노 (St. Stephen)	이 명 순 원 이 정 이 재 박 동 승 한 동 승
4일	크리스티안	허 채 열 김 호 현			
6일	아 셸 라	김 보 경			
8일	마 리 아	박 순 옥 이 순 자 이 영 희 홍 미 옥	29일	다 비 드 (St. David)	김 용 일
13일	루 치 아	배 수 현		사 비 네	이 금 자
15일	크리스티아나	홍 춘 자			
16일	노 아 아델하이드	박 노 아 진 윤 희			

❖ 1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일	비비안나	이진아(O)	23일	빅토리아	강연희(H)	
	바울리나	강미향(H)	25일	아나스타시아 노 엘 라	김영숙(B) 김유경(H)	
13일	루 치 아	최예린(B)	26일	스테파노	문우영(H) 부종배(O) 유순식(H)	
		문정자(H)			스테파니	이경숙(H)
		강은지(B)			28일	돔 나
오틸리아	김선우(O)					



❖ 12월 성가번호 ❖

12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2일	95	211	153	97
9일	96	220	165	91
16일	88	217	163	93
23일	92	513	178	89
25일(성탄대축일)	107	111	103	101
29일(송년미사)	105	25	188	77
30일	114	212	178	113

❖ 12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2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2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최장용(레오) 김진호(프란치스코)	1구역
9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주일학교	2구역
16일	이정훈(요나스) 이소라(로셀리나)	허길조(안드레아) 이명자(가밀라)	청년회	3구역
23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4구역
30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청년회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0월 28일	11월 4일	11월 11일	11월 18일
주일헌금	179,36	216,52	225,00	180,44
2차 헌금	223.89			227.34
헌납금		110		630
구좌입금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360,00 * 헌납금 총 합계 1.100,00			

❖ 자진헌납금 ❖

2018년 10월 28일 - 2018년 11월 18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현금납부 :

박춘실, 김효정, 김경열, 김기연, 박성아, 김민옥, 이종하,
 이수웅, 이현묵, 이경규, 윤석순, 윤예진, 진윤희, 강신행,
 우동천, 이정수, 심동근, 이(박)정은, 강순행, 황영선, 서세원,
 손수희, 최장용, 최승진, 김경미, 김건, 현영애, 신옥희,
 정마리아 Schuster, 문수진 Sebastian, 배성우, 김계희, 김용일,
 방은일, 이공종, 한말조,

◆ 구좌입금 :

김형웅, 최현봉, 이석우, 김대현, 김유석, 영희 Huber—Pahk,
 강일남, 홍종각, 육종인, 백정선, 남궁춘배, 최순남, 김동수,
 홍경영, 김진호, 이영원, 허두욱, 이정훈, 김치수,
 영희 Eggerstedt, 이명원, 이상봉, 허길조, 방조영자, 허채열,
 권지연 Rabe, 이성원, 박준병, 최성자, 옥수 Ranitzsch,
 정정숙, 서유미, 김부남, 김원자, 최화영, 이철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교회의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12월입니다. 2019년까지는 달력 한 장이 더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새해인 만큼 신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기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 예수 성심 성당과 함께 하는 Weihnachtsmarkt(성탄바자회)가 12월 1일과 2일에 있습니다. 12월 1일 토요일에는 14시부터 18시까지, 12월 2일 일요일에는 12시부터 16시까지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 일요일에는 16시에 주일미사를 봉헌합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 12월 8일 토요일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대축일 미사를 10시에 만남성당에서 봉헌합니다.
4. 12월 16일 일요일 주일미사는 St Olaf 성당에서 15시에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소는 Speckenreye 41, 22119 Hamburg입니다.
5. 12월 13일 목요일 17시 30분에는 Lebendiger Adventskalender 행사가 만남 성당 아래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대림과 성탄 노래, 그리고 차와 다과가 있는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6. 성탄 대축일 미사를 안내합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 미사 20시 만남 성당 강당,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미사 15시 예수 성심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탄 대축일 미사 후에는 성탄예술제가 진행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시는 모든 분들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성탄예술제를 위해 재능기부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7. 12월 26일 수요일부터 12월 28일 금요일까지는 마산교구 재 유럽 사제 신학생 모임으로 인하여 미사가 없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8. 12월 29일 토요일 17시에는 만남성당 강당에서 송년미사를 봉헌합니다. 송년미사 후에는 음식 나눔이 있겠으니 각 가정에서는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 나눔 후에는 송년축제가 청년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복권과 큰 상품이 걸려 있으니 청년회의 지시에 잘 따라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9. 12월 30일은 성 가정 축일 주일미사가 15시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있으며, 1월 1일 화요일에는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15시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봉헌됩니다. 미사 후에는 떡국 나눔이 있겠습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11월 미사는 11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Hedwig 성당에서 봉헌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에 김순자(젤뜨루다) 자매님 70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을 기원합니다.
3. 12월 미사는 12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Hedwig 성당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11월 공동체 미사는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봉헌했습니다.
4. 12월 공동체 미사는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봉헌하고 신부님과 작은 성탄 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1월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는 11월 10일 토요일에 연중 32주일 평신도 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공동체 기도모임은 11월 24일(토) 오후 5시에 김형철(마리오), 이진이(비비안나) 가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3. 최랑(로사) 자매님이 11월 17일 예쁜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나온 Ella Sommer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기를 바라며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4. 12월 공동체 미사는 12월 15일(토) 오후 5시에 Pernickelmühle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미사 전 오후 3시부터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한 영화를 상영하며, 미사 후에는 신부님과 함께 성탄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일 학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감	최영자(파올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비자교리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민음의 샘 C.	매월 첫째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이순자(마리아)
	평화의 모후 P.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 (정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방조영자(젬마)		
		총무	육종인(베로니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유미(레지나)		
		부회장	이정훈(요나스)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12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토	대림 제1주일	대림바자회 (Weihnachtsmarkt)	오슬로 공동체
2	일			16시 주일미사
3	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		
4	화			
5	수			
6	목	성 니콜라오 주교		
7	금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대설		
8	토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0시 대축일 미사	브레멘 공동체
9	일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교리 주간)		
10	월			
11	화			
12	수			
13	목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대림 행사(만남 성당)	
14	금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		
15	토			오스나브뤼크
16	일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St. Olaf 성당에서 미사	
17	월			
18	화			
19	수			
20	목			
21	금	동지		
22	토			하노버 공동체
23	일	대림 제4주일		
24	월	예수 성탄 대축일 밤미사	20시 미사, 만남 강당	
25	화	예수 성탄 대축일	15시 예수성심성당	
26	수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미사가 없습니다. 마산교구 사제 모임
27	목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	연령회 월례회	
28	금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29	토		송년미사 17시 만남강당	
30	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31	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
 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
 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넷째 금요일 16시 00분(4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